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6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59 호

본산 통리원 건축 37년 만에 새 단장

도심 현대인 삶 속에 전통 불교 이미지 부각



새롭게 단장한 불교총지중 본산 통리원 전면(좌)과 입구(우) 사진

불교총지중 본산 통리원이 건축 3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5월 새 단장을 마쳤다.

지붕에는 검은색 기와를 올리고, 건물 외벽은 종단 가사와 범의 상징 색인 황금색과 자색, 밤색 계열로 채색하여, 종단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격자무늬의 나무 창틀

로 창문을 장식하여 그 안에 한지를 덧대어 고전미를 드러냈다.

도심 현대인의 삶 속에 전통 불교가 조화롭게 자리매김한 듯한 한국밀교 본산의 위용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지난 3월 8일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 서원당에서 지진불사를 봉행한 이래 두 달여 만이다.

1층 로비는 너무 밝지 않은 은은한 조명으로 천장과 벽채를 안정감 있게 감싸주도록 조성되었다. 목은 카펫을 들어내고 데코 타일로 조성된 바닥과 우물 천장 가운데 나무의 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빗살무늬 목망 장식은 한지 유리창 위로 반사되는 빛과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종교적인 신성함을 더했다.

본존과 수다라, 종단이 발간한 책 등을 마치 미니 박물관을 연상토록 정돈된 유리 박스 안에 전시하여, 안내자의 설명 없이도 총지중의 역사와 상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이번 공사는 당초 계획되었던 지붕 수리,

건물 외벽 공사, 낡은 담벼락 철거 등 구조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화장실과 계단, 합창단실 등 일부 부속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부처님의 가지신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무탈하게 회향할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교무들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진불사에서도 밝혔듯이 창종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된 통리원이 교화와 종단 발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소재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통리원과 종령실, 통리원장실, 법장원, 밀교연구소, 합창단실, 회의실 등과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박재원 기자
사진=전서호 기자



총지사 봉축법요식에서 권예진(10살)양이 연등 공양을 올리고 있다.

‘희망과 용기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자’

부처님오신날 전국 사원서 봉축법요식

불교계 가장 큰 명절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총지사 등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치유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극복하자고 다짐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지난 5월 19일 역삼동 총지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법어를 통해 “고통의 소멸은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 지난한 숙제이자 과제”라면서 “팔정도의 실천과 바르게 행하는데서 고통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 “칭찬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묘약이라며 자비행의 실천과 함께 희망과 용기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 고통을 치유해 나가자.”고 법문했다.

또 이날 법회에서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는 통리원장 인선정사의 봉축사를 대

독하며, “우리 자신이 이미 비로자나 부처님임을 믿고 현세정화의 길을 실천해 나가자.”고 주문하며, “부처님의 법음을 잇고 실천하는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국 사원에서도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및 훈향정공 후 대중불사로 법요식을 봉행하였으며, 동참 교도들은 희망과 치유의 마음을 담은 연등 공양을 하며 국난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발원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법요식 외에 봉축 행사와 공양은 대부분 생략되었으며, 동참 교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서원했다.

〈관련 화보 6,7면〉

종/조/법/어

탐욕을 부리고 교만과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모든 번뇌가 된다

지 면 안내

5면 이달의 법문 / 법일 정사
8면 밀교의 특징_<5>

6,7면 부처님오신날 특집 화보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㉔

하반기 49일 불공 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오래 지은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장원하게 지은 악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 <종조법설집>

일시 _ 총기 50년 5월 28일(금) - 7월 15일(목)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

※ 지자체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덕화사 승강기 설치 불사 원만 회향

5월 14일 테이프 커팅, 감사패 전달



왼쪽부터 김기태 각자, 신정회 윤숙희 회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 덕화사 주교 법상인 전수, 재무부장 덕광 정사

부산 덕화사 교도 김기태 각자의 보시행으로 시작된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승을 위한 승강기 테이프 커팅식이 지난 5월 14일 정오 덕화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외부인 초대 없이 덕화사 교도와 관계자만 참석했다. <본지 256호 기사>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여법하게 회향되었다. 사원 후면 오른

쪽 외벽에 세워진 승강기는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오르내릴 수 있으며, 최대인원 13인승으로 수하물을 포함하여 1,000Kg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덕광 정사를 비롯해 덕화사 주교 법상인 전수, 김기태 각자, 신정회 윤숙희 회장은 이날 교도들의 불법승연호에 맞춰 승강기 운영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에 앞서 덕화사 교도들은 오전 10시부터 서원당에서 법상인 전수 집공으로 승강기 불사 회향 불공을 올렸으며, 공사 관계자들도 다 같이 동참해 승강기의 안전 운행과 교화 발전을 서원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김기태 각자에게 감사패와 밀교의 최고 상징으로 삼는 아자오전(阿字五轉)을 전달했다. 감사패를 통해 통리원장은 “승강기 헌공불사

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회사로 총지종단의 교화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치하하고, “모든 교도들에게 육행실천의 귀감이 되어주어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각자는 5월 27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관련기사 11면)

법상인 전수는 “김기태 각자님과 윤숙희 회장님 내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꼭 필요한 때에 맞춰 큰 회사를 해주셔서 덕화사 교도들이 더욱 신심을 내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인사했다.

이번 승강기 설치하는 평소 교도들의 신행생활 편의와 교화와 제도를 위해 승강기의 필요성을 생각해 오던 덕화사 교도 김기태 각자의 회사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종단이 여기에 힘을 보탰다. 2006년 덕화사 신축헌공가지불사 이래 15년여 만에 증설되었다. 이번 설치로 3층 서원당이 마천루처럼 느껴졌을 어르신 교도의 신심을 더욱 높이고, 부산 북부지역의 전법과 교화의 대표 사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박재원 기자
사진=전서호 기자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김기태 각자에게 감사패와 아자오전을 전달했다.



승강기 회향 불사에 동참한 교도들이 불공 후 스승님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코로나 빛속 자비 등불 행렬

본산 총지사, 온라인 연등법회 참여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불교계 사부대중이 제등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본산 총지사에서는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연등회에 참여했다.

코로나 빛속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자비의 등불은 밝혀졌다. 지난 5월 15일 ‘불기 2565(2021)년 연등회’가 서울 종로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기념식에서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참석한 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내외빈들의 ‘희망과 치유의 등공양’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날 연등회는 총지종 본산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를 비롯한 60여 연등회 참여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됐다.

또 매년 동국대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연등회도 동영상으로 대체되었으며, 개인 및 2인 이상 팀들이 참여한 동영상들을 모아 연등법회에서 공개했다. 동영상에 줌으로 참여한 단체들은 카드섹션과 연등을 흔들며 호응했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은 축소하여 진행됐다. 행렬은 조계사 일주문부터 안국사거리-공평사거리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연등회 깃발을 시작으로 각 종단 대표를 선두로 스님들과 불자들이 등을 들고 행렬을 이어갔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총기 50년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5월 28일부터 수행정진, 영식천도 업장소멸 발원



불교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어갔다. 사진은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어갔다.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 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5월 28일 일제히 입재불공을 봉행하고, 7월 15일 까지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49일 불공은 밀교의 호국 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진 호국가불공이며, 부모와 나라, 중생과 삼보의 은혜를 갚는 불공의 일환으로, 사대 은혜에 보은하는 종단의 중요 실천불공이며 해탈절에 회향한다.

서원당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총지종 교세발전,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 평화통일, 재난불생 산업발전 등 나라와 일체중생의 영식천도, 업장소멸을 서원하며 49일 간 불공을 올린다. 49일 불공 중에도 6월 월초 불공은 예정대로 정진한다.

내마음의 등불

실보사 혜원정 전수 편

모든 법이 오직 무상

육근(六根)이 무상하고, 육식(六識)이 무상하며, 삼독(三毒)의 불길이 무상하고, 생, 노, 병, 사, 근심, 슬픔, 번뇌가 모두 다 무상한 것이니,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이 오직 무상한 것이다.

(초분설경, 初分說經)

일체의 유위법은 꿈결같고 환(幻)과 같으며, 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지어다.

(금강경, 金剛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실보사 혜원정 전수님은 삼밀사 묘흥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258호 5면 제 14대 종의회와 종의회의장을 제 13대 종의회와 종의회의장으로, 4월 4일을 4월 24일로 바로잡습니다.

신진사대부와 불교

지혜의 눈

고려시대 불교,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하나로 묶는 끈
조선왕조 개창 명분을 세우기 위해 불교를 희생양으로

고려왕조는 지방에 근거지를 둔 호족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왕건도 개경 근처의 호족 출신으로 다른 호족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려 왕조에 협력한 지방의 유력한 계층에게 성씨와 함께 그들의 거주지를 본관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향촌 사회를 관리하는 일정한 역할을 맡겨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방행정조직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지명(地名)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사례는 서양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de-, 독일어의 von- 등은 그 뒤에 지명이 나와서 어디 출신의 봉건 영주 출신임을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고려는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되면서 호족

들은 세력의 크기에 따라 대호족은 중앙의 귀족으로 중소 호족은 지방의 향리로 분화합니다. 고려는 모든 지방의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군현의 행정을 향리의 자치에 맡겼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관을 파견한 군현을 두었는데 이를 주군(主郡), 주현이라고 하고 향리의 자치에 맡긴 군현을 속군, 속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비중은 대략 주현 하나가 속현 4개 정도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양의 봉건 제도처럼 일종의 지방분권적 행정체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향리는 단순히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면 고려시대의 향리는 실질적인 지방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고려의 향리는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비중이 조선의 향리보다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통혼권(通婚權)을 드는데 고려의 향리는 중앙의 귀족과 통혼할 수 있었지만 조선의 향리는 양반계층과 통혼하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향리는 중앙의 문벌귀족과 지방 호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향리는 문과에 응시하여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벌귀족이 몰락하면서 그 공백을 이들 지방 향리 출신의 관리들이 메우게 되는데, 이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하였는데 역사적으로는 신진(新進)사대부라고 호칭합니다. 고려왕조는 많은 전란을 겪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북방 유목민 계통의 거란족과 여진족의 침략을 받았고 마침내 몽골족의 침압으로 소위 원간섭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의 지배층을 권문세족(權門世族)

이라고 하여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과 구분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원파로 출세한 사람들로 다양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의 문벌귀족이 건국주체세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권문세족은 원나라에 기생하는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운영의 실질적 업무는 전문 관료인 신진 사대부가 담당하였던 것이죠. 원나라가 약화되면서 한족(漢族)의 명나라가 세워져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방의 초원지대로 몰아내었습니다. 고려도 원명 교체기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공민왕이 반원(反元) 자주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정책을 승려인 신돈이 맡게 되면서 개혁을 추진할 세력으로 신진사대부를 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원과 중심의 권문세족은 신돈의 개혁에 반발하여 신돈을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신돈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타락한 승려가 아닙니다.

그의 개혁은 과감했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진사대부를 중용하여 권문세족을 견제했고, 경제적으로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통해 권문세족이 빼앗아 간 토지를 본리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이들을 본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어쨌든 신진사대부는 더 이상 권문세족과 함께하기에는 세계관이 달랐고 두 정치 세력은 권력을 두고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신진사대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흥무인세력의 중심인물인 이성계와 결탁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조선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이 과정에서 고려의 흔적을 지워버리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고 삶의 위안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앙공동체인 향도(香徒)는 고위관리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려인을 결속시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교를 제거하지 않고는 조선왕조개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정도전이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써서 불교를 비판하였던 것이죠.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던 계기는 불교 승려인 신돈에 의해 마련되었지만 정작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불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의료 35

법상 정사

죽은 이후 나는 어디 있는가?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소멸을 슬퍼하는 것이 삶의 필연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탄생을 기뻐하는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될 때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가 휩싸이게 마련이죠. 죽음은 언제나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죽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후회 없이 여유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철저히 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삶을 단숨에 종결짓는 죽음, 그 죽음

을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 해왔습니까? 마치 남의 죽음이라도 되는 듯이 아무 준비 없이 황망하게 죽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이 지

을 보다 의미 있게 영위함으로써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따라서 죽음의 준비는 죽을 준비가 아니라 바로 의미 있는

‘죽음준비’는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준비 죽음에 순응하는 순간 영혼의 치유 시작

나면 내일이 올 수도 있고 내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과 내생 중 어느 것이 먼저 찾아올까요? 내일이 먼저 찾아올지 내생이 먼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죽음준비는 제한된 삶의 시간

삶의 준비입니다.

죽음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준비는 마지막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우리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삶의 마지막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여유 있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이며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까?

육신이 호흡과 심장박동을 멈추면, 영혼은 3일 만에 걸쳐 육신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있음을 당연히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누구니까? 과연 나라고 부를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가는 육신이 자기 자신입니까?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이 자기 자신입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근거로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죽는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카르마에도 불구하고 다음 삶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근심에 빠진 상태로 죽는다면, 우리가 그간의 삶을 잘 살았을지라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 지녔던 마지막 생각과 감정이 곧바로 이어질 미래의 행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연유로 심리학자들은 죽어가는 순간의 분위기가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준비 교육은 죽음을 수용하면서 죽음을 넘어서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죽음준비를 갖추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수용하는 시점부터 죽음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순응하는 순간부터 영혼의 치유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보이야기 19

법선 정사

존재의 세 방식, 삼성(三性) 심식(心識)의 세 가지 상태

유식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도를 설명할 때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를 삼성(三性)으로 설명한다.

유식학에서 존재의 세 가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삼성설이다. 이것은 존재가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 가지 방식인 동시에,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는 세 가지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삼성설은 존재의 상태(狀態)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존재의 진상(真相)을 원성실성(圓成實性), 존재의 방식을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원성실성이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가리키며,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이란 우리가 ‘허망한 분별을 일삼고 있는 실태’를 가리킨다.

변계소집성의 변계(遍計)는 널리 두루 집착한다는 의미이며, 계(計)는 계탁(計度)이라는 용어에서 온 말이다. 계탁은 따지고, 분

석하고, 나누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사랑하고 분별하는 잘못된 집착의 분별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계소집성은 널리 계탁해서 집착되어지는 성질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번뇌성을 상징하는 용어가 된다.

본래 없는 것을 범부의 망상(妄想)으로 갖가지 추측·억측을 통하여 있다고 집착하게 하는 것으로 예컨대 새끼줄을 뱀이라고 인식하는 것, 또는 토끼뿔처럼 긴 귀를 뿔로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깨달음에 의하여 관조(觀照)된 경지가 아니라 범부의 미망(迷妄) 때문에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되는 일체의 사물현상이다.

변계소집성은 인연(因緣)에 의해 성립된 현상을 실제로 고착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집착하는 견해, 또는 그런 집착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으로 마음이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하여 지어낸 허망한 모습이라는 뜻에

서, 허망분별상 또는 분별성이라고 불린다.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은 고정 관념에 싸인 우리의 마음이 일으킨 집착 때

견해,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존하고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뜻에서, 인연상 또는 의타성이라고 불린다.

모든 것은 인연(因緣)이라는 존재 방식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으므로 허깨비처럼 임시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의타기성이다. 뱀과 새끼줄에서 새끼줄을 착각하여 뱀으로 보이는 것을 정정하여 새끼줄이라고 아는 것은 의타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는 그

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래의 사실대로 아는 것, 또는 고착된 모습을 집착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진실 즉 진여(眞如)를 말한다.

이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실한 모습이라는 뜻에서, 제일의상(第一義相) 또는 진실성이라고 명칭한다. 모든 현상의 뿌리에 숨어있는 진실이 바로 원성실성이다.

이와 같이 삼성은 일체를 인식함에 세 가지의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분류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의타기성이다. 의타기성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는 현상계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참된 모습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대상에 잘못 집착하여 변계의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변계소집성이고 반대로 의타기성임을 참되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여의 참된 세계를 여는 것은 원성실성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인연의 의타기성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계의 모든 사실들을 잘못 이해하는 변계소집성의 상태를 버리면, 원만한 진여의 진실성인 원성실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의 가능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 중생이 부처가 되는 성불 가능성 설명

문이고, 진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실체는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변계소집성이다. 의타기성의 의타기(依他起)는 ‘(이것은) 저것에 의해서 (이것에) 일어난다’는 연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인(因)과 연(緣), 자(自)와 타(他)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인연에 의한 생(生)을 말한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해, 다시 말해서 인연(因緣)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의 모습이 원성실성이다.

일체가 의타기성인 것을 모르게 되면, 변계소집성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밝게 알게 되면 변계소집성의 집착을 그치게 되고, 대상에 대하여 아(我)와 법(法)으로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원성실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의타기성에 의해서 원성실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성실성은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고착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6월 1일~ 6월 30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느낀 만큼 사랑하게 된다



법일 정사

옛날 한 노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그만 명을 마쳤다. 노모는 아들의 시체를 산으로 실어 날렸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울며 부르짖었다.

“내가 자식 하나를 두어 늙어서 의지하려 하였더니, 이제 나를 두고 죽었구나.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랴. 지금 죽어서 한곳에 묻히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사오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겨 오백 비구를 거느리시고, 산에 가서 노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산에 있는가?”

“오직 자식 하나가 있었으나 나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애정이 지중하여 함께 죽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노모에게 이르셨다.

“자식을 다시 살리고 싶은가?”

노모는 크게 기뻐하면서 애원하였다.

“어서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좋은 향과 불을 구해 오면, 내가 곧 주문으로 기원하여 다시 살리겠다.”

이에 노모가 다니면서 향과 불을 구하려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물어보았다.

“이전에 당신 집에 사람이 죽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모두 대답하였다.

“선조 이래로 모두 죽었소.”

이렇게 수십 집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향과 불을 구하지 못하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여쭙었다.

“두루 다니며 향을 구하려 하였으나,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어서 향을 구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모에게 말씀하셨다.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자가 없으며, 죽은 후에 또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인데, 노모는 어찌하여 우둔하게 아들을 따라 함께 죽으려 하는가?”

노모는 이 말을 듣고 곧 무상한 이치를 깨쳤으며,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널리 경법을 설하시자 곧 수다원도를 얻었으며,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이 모두 위없는 바른 도의 뜻을 일으켰다.

『잡비유경雜譬喻經』

이 이야기에서 노모는 어떤 괴로움으로 울며 슬퍼하였는가요?

노모는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설법을 듣게 됩니까?

그 후 노모는 괴로움에서 벗어났는가요?

우리 중생의 온갖 고통을 사고팔고(四苦八苦)라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네 가지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도처에 ‘나’는 ‘오온(五蘊)’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간의 눈, 귀, 코, 입, 몸으로 구성된 물질요소인 색(色)온이며, 인간의 정신 요소인 감정, 감각과 같은 느낌 작용인 수(受)온이라고 하며, 개념, 표상, 심상의 인식작용을 의미하는 상(想)온, 마음의 작용으로

을 잡았다.

무명선사는 ‘찾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다르자’ 맹사성은 ‘찾잔이 넘친다고 말하자,

진언 염송, 탐·진·치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밝혀 머리가 아닌 온 마음과 온몸으로 꾸준히 정진해야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에 집착하는 고통을 합하여 여덟 가지 고통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좋은 향과 불을 구해 오면, 내가 곧 주문으로 기원하여 다시 살리겠다.”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가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집 사고, 차를 사고, 승진하고, 건강하게 병원 안 가고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망이며 조그마한 소원일 것입니다.

이 작은 소망을 이루고자 복을 짓고 선행을 하고 마음공부하고 욕심을 버리는 진언 염송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소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중생이라면 태어남으로부터 생기는

나타나는 의지작용인 심리현상들인 행(行)온, 인식판단의 작용, 인식주관으로서의 주체적인 마음인 알음알이를 식(識)온이라 합니다. 이 오온으로 구성된 인간의 실체를 해체해서 보고 진아, 대아, 참 생명 등으로 집착하는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라고 강조하시지요. ‘나’라는 실체가 없기에 괴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오온 하나하나의 작용일 뿐이란 것을 노모는 깨달았던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의 재상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세종 때 이조판서로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였고 우의정에 오른 조선의 선비인 맹사성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맹사성은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19세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하고, 20세에 파주 군수로 부임했다. 아직은 어린 나이로 우쭐대며 그 고을의 무명선사를 찾아가 인사도 올릴 겸, 그 고을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좌우명 한 마디를 부탁했다.

무명선사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선정을 베풀라.”고 하자 맹사성은 겨우 이런 말을 들으려 그 먼 길을 왔단 말인가? 하며 일어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무명선사는 이왕 먼 길을 왔으니 차나 한잔하고 가시라 맹사성

무명선사는 “찾잔이 넘치는 것은 보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그르치는 것은 왜 못 본단 말인가?”라고 혀를 찼다.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은 맹사성은 부끄러워 찾잔도 다 비우지 못한 채 서둘러 방문을 나서다 문지방에 그만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다. 무명선사는 “머리를 조금 더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일로 맹사성은 크게 깨닫고 한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았으며, 고향을 방문할 때도 남루한 행색으로 그가 벼슬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가 염송 정진하는 것은 노모가 아들을 잃어버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같고, 맹사성과 같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만에 빠진 아상과 아집의 고통을 빨리 깨달아 탐, 진, 치 번뇌의 고통을 여의기 위한 지혜를 밝히는 데 진언 염송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식은 암흑이요, 지식은 광명이라 합니다. 총지종에서 말하는 생활불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불교를 마음으로 행하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진언행자로서 머리가 아닌 온 마음과 온몸으로 실천하며 지혜의 등을 밝히고자 살아가는 불자가 진짜 생활 불자입니다. 꾸준히 정진해 나아갑시다. 성도합시다.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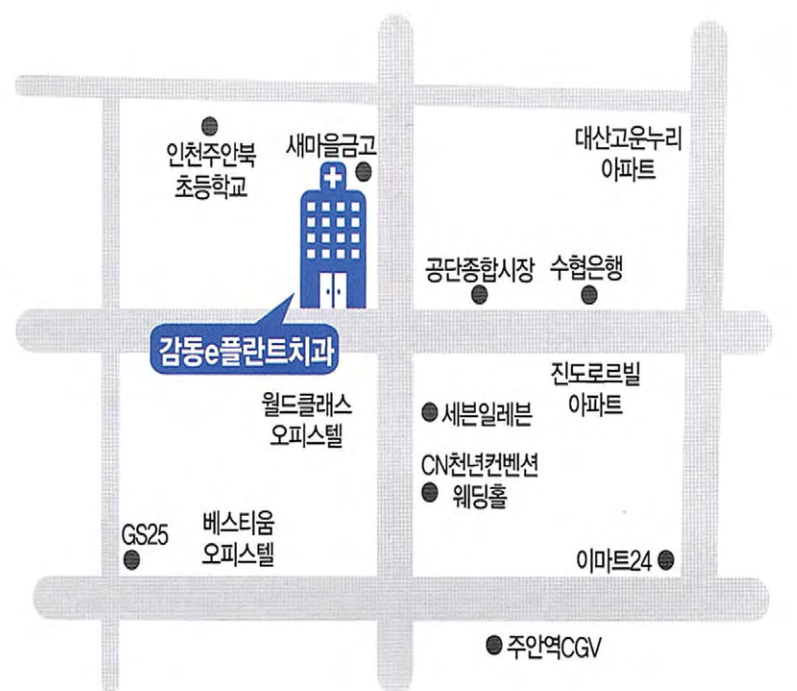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환희심 가득 봉축법요식, 부처님오심을 한마음으로 찬탄

불기 2565년 5월 19일 코로나 공황 속에서도 부처님은 오셨다.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의 교도들은 온 정성을 다해 부처님을 맞이하는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교도들은 시국에 맞게 차분하고 여법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며, 일상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서원했다. 전국 사원의 서원당 모습을 통해 중단 봉축법요식을 갈무리 했다.<편집자 주>

사진으로 보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① 부처님오신날을 환히 밝히는 만보사 연꽃 서원등
- ② 화합과 공덕의 상징인 해탈향을 공양 중인 총지사 교도들
- ③ 육법공양을 마친 운천사 교도들의 본존 앞 합장례
- ④ 유가삼밀 금강염송 중인 총지사 교도들
- ⑤ 종령 법공 예하께서 봉축 법어를 내리고 있다.
- ⑥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관성사에서 봉축사를 하고 있다.
- ⑦ 간절한 마음으로 연등 올리는 총지사 교도와 수인사 교도
- ⑧ 정각사 신정회 정인숙 회장의 봉행사 낭독



부처님이 오신 날, 어린이가 함께 오신 날!

부처님오신날에 부모님의 손을 꼭 맞잡고 사원을 찾아온 어린 불자들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든다.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 합창으로 의젓하게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렸다. 육법공양, 연등 만들기,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등에 동참하며 부처님오신날의 마스크트가 되었다. 맑고 깨끗한 동심이 곧 불심이라는 말처럼, 새싹 불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하다. 부처님오신날 어린이가 함께 오시니 봄별이 화사하고 하늘이 더욱 푸르다.<편집자 주>

밀인사

‘꽃을 든 남자’

육법공양 올리는 두 어린이,
부처님 앞으로



총지사

‘탐처럼 밝고 위대하게’

정자 중인 벽안의 여덟 살 토니아



정각사

‘연꽃잎 하나에도 정성 가득’

세상을 밝히는 동심



성화사

‘내년엔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 품처럼 따뜻한 등공양



성화사

‘부처님 저 예쁘죠?’

때때웃 곱게 입고 조심스럽게



밀인사

‘아빠처럼 할래요’

아빠를 따라 서원당에 선 꼬마 불자



‘아기 부처님 시원하시죠?’

마음도 절로 깨끗해지는 관불의식

화음사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시대 상황의 변화

붓다 및 초기 불교 교단은 의례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밀교의 시대가 되면 공양법, 호마, 명상법(사다나, 성취법) 등의 의례를 적극적으로 행하게 된다.

이런 구체방법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세속적이긴 하지만 부정작업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업이나 번뇌를 없애려는 부정적 태도는 전통적으로 지멸의 길(니브리띠 마르가, Nivritti marga)로 불리고, 세간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해 마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태도는 축진의 길(쁘라브리띠 마르가, Pravritti marga)로 불려왔다. ‘구사론’에서 볼 수 있는 업이나 번뇌를 없애가는 방법은 지멸의 길을 대표한다.

반면 밀교에서 볼 수 있는 일상에 서 적극적인 태도는 축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 태도 혹은 현세 거부 완화가 밀교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불교가 가진 구체방법이 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 나아가 인도의 여러 종교가 놓여있

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원래 불교는 도시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신성을 중시하는 종교였다.

아리아인은 편자브 지역에 침입하고 나서, 약 1,000년을 걸쳐 동인도까지 이동해 갔다. 이 이동이 끝난 기원전 5세기 무렵의 동인도에서는 무사와 상인들이 득세하는 지역이 늘고 있었다.

당초 불교는 이러한 무사나 상인들이 받쳐준 것이었다. 그러나 무역상대였던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상인층은 세력을 잃고 7세기 중기 이후 인도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옮겨간다.

그때까지 불교의 중요한 종교적 재질이었던 개인의 정신적 지복을 대신하여 현세 이익의 비중이 커졌다. 밀교가 세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7세기 무렵 이후이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사회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개인의 정신적 지복을 출가자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태도에서 제례와 같은 집단적 종교행위를 고려하였으며 나아가 토착적 숭배를 포함시키는 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보수적인 승려들에 의해 억압 또

는 배제되었던 피와 뼈, 생피의례도 그 전에 없던 강한 기세로 불교 탄트리즘 속으로 흡수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4~5세기에는 인정을 받기 시작해 7~8세기에는 매우 두드러졌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대승 불교가 구체의 방법으로, 호마제 등 집단적 종교의례, 혈·골·가죽 등의 토착적 숭배, 사며니즘의 신체 기법(병의, 탈혼 등) 등에 변질·순화를 더한 후 자신의 시스템에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어떤 것을 어떻게 변질·변화시켰는지 그 역사가 밀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풍부한 의례문헌들의 생성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밀교의 의례가 행해지게 된다. 그런데 13세기 초 불교가 멸망한 인도에서는 현재 밀교의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전통은 티베트와 네팔,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변용된다.

인도의 밀교의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은 당시 사 람들이 남긴 의례문헌일 것이다.

인도 불교가 밀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 것은 5, 6세기의 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로부터 인도 땅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수백 년 사이에 엄청난 수의 밀교 문헌이 나타났다. 의례의 해설을 주제로 하는 의궤로 불리는 문헌은 물론 경전이나 그 주석서 등에도 의례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

인도의 종교적 문헌이나 철학서는, 주석서라고 하는 형태를 자주 취한다. 옛 시대에 신에 의해 계시된 말(슈루티, śrúti)을 성인들이 적어 놓은 후에 근본 경전이 된다.

이에 대해 후세의 사람들은 주석서라는 형식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한다.

주석서에 더 나아가서 주석을 추가한 복주, 게다가 주석을 더한 복주처럼 하나의 근본 경전에서 수많은 지류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같은 일은 불교에도 일어났다. 불교의 경우 근본성전은 부처가 설파

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경전의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주석서의 성립과 그 후의 전개는 자주 유파의 분열을 낳았다.

밀교에서는 의례의 내용을 해설

붓다 및 초기불교 교단, 의례에 대해 소극적 밀교시대, 공양법·호마·명상법 의례 갖춰

한 경전이다. 여기에 주석이 새겨지게 된다.

불교의 경우 특정한 경전을 따지지 않고 철학적인 사변을 정리한 문헌도 많다. 용수의 「중론」이나 세천의 「구사론」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권위 있는 논서에도 주석서가 계속해서 쓰여진다.

밀교경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대일경」 「금강정경」 「비밀집회 탄트라」 「삼바라 탄트라」 「시륜 탄트라」와 같은 중요한 밀교 경전에는, 모두 복수의 주석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는 근본 경전에 필적하는 중요성이 후세의 불교도들로부터 부여된 것도 있다.

주석자들은 경전의 내용을 굳게 지킨 것은 아니다. 거기로부터 독자

한 ‘의궤’도 많이 저술되었다. 의례의 내용에 따라서 만다라의궤, 관정의궤, 호마의궤 등 다양한 것이 있다. 만다라에 대한 정보는 만다라의궤는 물론, 관정의궤와 같이 만다라를 필요로 하는 의례의궤에 포함된다.

원래 밀교의 근본경전이나 주석서에는 의례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이러한 의궤와 내용이 겹쳐 있었다.

그러나 같은 근본 경전이나 주석서로부터 만들어진 의궤일지라도,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의례의 방법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은 주석서의 전개와 같다.

특정 경전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만다라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위대한 역경사 린첸상뵤



21세기 알차사원 린첸상뵤 초상 벽화

대승불교시대 방대한 불전의 증가는 논리학과 밀교가 등장하는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밀교는 역사, 문헌, 교리, 수행, 의례, 미술 등 불교의 대부분의 주제나 소재에 대한 열매이자 귀결이다. 그 연원은 언제나 석가모니붓다가 설한 삼학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밀교가 유행하면서 나란다대가람은 계학으로서 삼매야계, 해학은 논리학, 정학은 밀교수행으로 묶는 간결함을 지향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티베트에 전해졌다.

티베트는 8세기경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지만 9세기경 랑달마

왕의 훼손에 의해 약 1세기 동안 침체되었다.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살해되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지만 불전의 멸절과 역경, 의례승을 잃는 것은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된다.

불교를 복구는 곧 불전의 복구로부터 시작한다. 티베트의 린첸상뵤

아직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린첸 왕축은 불교공부를 위해 인도를 방문하였다.

이때 파시제모와 어머니가 여행을 도왔는데, 무수한 도적과 풍토병, 풍습에 고생하였고 스피니, 꼴루를 거쳐 이극고 카쉬미르에 도착하였다. 첫 스승은 슈라다까라와르만이었으

티베트불교를 재건하기 위해 21인의 티베트청년을 인도에 유학하게 하여 산스끄리뜨어와 역경학을 배우게 했는데 린첸상뵤와 사촌인 록빠세랍을 제외하고 모두 인도에서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린첸상뵤는 49세 두 번째 인도여

인도 원전 번역, 티베트대장경에 포함시켜 요가판뜨라, 무상유가판뜨라 전적 중요시

는 위대한 역경사로 티베트불교를 새로이 세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도원전들을 번역해 티베트대장경에 포함시킴으로써 인도의 종교 문헌을 보존해 인류의 정신문화에 기여하였다.

린첸상뵤는(958-1055) 958년 서부 티베트에 해당하는 구계의 카체왕길에서 태어났다. 순수 티베트혈통은 아니지만 부모는 형 다음 태어난 둘째 아들을 처음에는 린첸왕축이라 이름지었다. 부모는 불자는 아니었지만 린첸상뵤로 하여금 불교를 공부하도록 지원하였다. 린첸 이후 태어난 남동생과 여동생은 불법에 귀의했다.

며 스승으로부터 산스끄리뜨와 불교철학, 밀교에 대해 공부하였다.

이후 동인도로 이동해 몇 년간 위끄라마실라사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티베트로 돌아온 것은 987년, 13년이 지난 후였다. 린첸상뵤는 밀교의 성취를 이루어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마침 지역을 지배하던 구계왕 예세워(947-1024)의 지원으로 티베트불교를 재건하는 사업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린첸상뵤는 손수 지은 왕가의 톨링사에 거주하면서 많은 인도의 스승을 모시고 역경작업에 전념하였고, 이후 6년간 인도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예세워 왕은

계통의 많은 주석들을 번역하여 반야학, 성취법, 관정 등의 주제에 대해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다.

린첸상뵤와 중요한 관계를 갖는 것은 예세워의 조카이자 장축위의 숙부인 라데왕으로, 왕의 지원으로 카찰사를 비롯해 많은 절을 건립해 역경과 불사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특히 996년 히말라야 자락에 따보사원을 건립하였는데, 처음에는 지역의 토착신이 방해했으나 이를 조복하고 건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당시 장축위는 인도 위끄라마실라사 출신 아피샤(982-1054)를 티베트로 초청하여 유명한 「보리도등

린첸상뵤에게 온전한 밀교를 다시 전했다고 한다.

이후 린첸상뵤는 10년간 아피샤로부터 밀교를 배워 그의 수학을 완전하게 하였으니, 티베트에 테라와다와 대승불교, 밀교가 온전히 전해진 것은 린첸상뵤와 아피샤, 서부티베트의 왕들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린첸상뵤는 95세 카체왕길에서 입적했지만, 그의 후생은 현시대에 태어나 로첸린뵤체라는 이름으로 종교와 지역의 발전에 힘쓰고 인도 스빠피의 따보사원을 주재하고 있다.

린첸상뵤와 아피샤를 보면 어쩌면 한국의 역경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고려대장경의 보존과 역경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문헌이라는 지역적 범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도불교에 존재했던 인도불전의 연구와 복원은 석가모니 붓다 탄생에 대한 진정한 경례이며 나란다대가람은 그 중심에 있다.

밀교의 인물사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명확해지는 견해들이 있다. 불교계 인물들을 만나며 진언, 달라니, 의례 등 밀교의 소재를 비불교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게 밀교를 모르면 불교사의 시야가 좁은 것이라 조언한다.

화엄이나 천태, 중관, 유식을 전공한 학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밀교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 역시 불교사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를 가진 학자로 간주한다. 겉보기엔 나이 들어 고집만 세졌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론」을 짓게 하여 불법이 파괴된 시절 석가모니붓다 시대의 계율회복을 토대로 삼보, 삼장, 삼학, 보살도와 바라밀 수행을 다시 티베트에 전하여 후전기 티베트불교가 융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린첸상뵤가 아피샤를 만난 것은 85세 톨링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아피샤는 린첸상뵤를 보고 “만약 당신 같은 분이 티베트에 있다면 내가 티베트에 다시 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린첸상뵤를 극찬하였으나, 아피샤가 밀교수행의 차체를 린첸상뵤에게 묻곤 다시 “영터리 역경사여, 진정 내가 티베트에 올 이 유가 여기에 있었군.”이라고 답하곤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2>

붓다가 가르쳐주신 길-8정도

붓다는 당신의 제자들이 걸어 가야할 길을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어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방법을 대표해서 말할 때는 항상 8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8정도는 8가지 바른 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의 고요 함입니다. 8가지 길을 돌아서 새롭게 도착하 는 곳은 다시 바른 견해입니다. 처음의 바른 견해와 마지막의 바른 견해가 말로 표현하 면 같은 말로 표현되겠지만 지혜의 깊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는 것입니 다. 지난 연재 ‘바른 견해’에 이어갑니다.

바른 사유

수행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 해서 생각하는 것을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만 이런 생각들은 내 마음 안에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런 힘은 내 가 알든지 모르든지 수행하는 가운데 작용 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아주 좋았을 때 분명한 통찰의 지혜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알아차림을 바르게 해 가게 되면 알아차리 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힘이 있어 집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 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 지를 판단하는 마음이 따라 오게 됩니다. 내 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차림 하면 마음의 자연스런 진행으로 이런 마음 이 일어납니다. 이 지혜가 삼빠자나의 첫 번 째와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옳다고 아는 마음도 있지만 더 먹고 싶은 욕 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힘이 더 커서 더 떠서 담았다고 해 봅시다. 내 스 스로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마음이 스 스로 그릇되었다는 것을 좋지 않은 마음의 느낌으로 보여줍니다. 그릇을 들고 자리게 들어가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업의 과보를 바로 받은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도 내 뒤에 남은 사람이 그 반찬을 먹는지 가 끔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 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있게 되면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 으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심의 힘이 강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지만 조 금씩 지혜의 힘이 커지면서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순간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 순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시간과 장소는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여 기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수행의 완성도 여 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미래의 완성된 수행 을 바라면서 지금 힘들게 수행하지 마십시 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충분합 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견해가 있고 일어나 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 합니다.

바른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 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차림의 대 상이 실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 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 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실재하는 것을 알아차림 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의 일어남을 따로 따로 알아갑니다. 여 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이 실재이기 때 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알아차림 한다고 하더라도 실재를 아는 것 은 아닙니다. 실재하는 법에 대한 분명한 이 해가 없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알아차림 할 때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석한 관념을 대상으로 합 니다. 그 때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느껴 지는 느낌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것들은 이미 마음에 인식된 것이고 관념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보라고 합니다. 자 유롭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라고 합니 다. 이렇게 알아차림 하게 되면 마음이 대상 으로부터 많이 물러나게 되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 차림이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마음 의 힘이 좋을 때 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 려지만 이 안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화되 지 않는 순수한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이런 이렇게 관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유한 성질로써 존재하는 것을 실재 하는 것, 빠라마다,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 수행에서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진정한 실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한다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위빠사 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의 고요함

집중명상을 통해서도 마음의 고요함이 생 기고 지혜명상을 통해서도 마음의 고요함이 생깁니다. 지혜명상에서는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반응하 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요함이 생깁 니다. 이것을 가니카 사마디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디는 여러 대상을 자유롭게 알고 깨 어있고 활기차지만 고요합니다. 마음의 활 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균형을 이룬 그런 고요함입니다.



지혜의 힘이 커지면 지혜로써 행동하게 돼
“미래의 완성된 수행 위해 지금 힘들지 말것”

수행은 우선 많이 듣고 읽는 것에서 시작합 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생겨나면 내 마음 은 스스로 이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생 각합니다. 수행을 해 가면서도 어떻게 수행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수행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바른 사유 에 들어갑니다.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자신 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실재의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 알게 되면 모 르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자연스 럽게 마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 생각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실재가 무 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조건이란 것이 무엇 인지, 일어나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 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생각을 통해서 분명한 결 론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배식 받고 있습니다. 준비된 반찬 가운데 내가 좋 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한 스푼 떠서 담았 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에서 한 스푼 더 뜨고 싶은 마음의 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 어나는 마음의 힘을 바르게 알아차림 했습 니다. 그러면 바로 뒤 이어서 그렇게 더 뜨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일 어납니다. 바로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마음의 느낌 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좀 더 입체적 으로 사유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뒤에 몇 명이 남았고 반찬이 얼마 남았으니까 얼 마를 뜨는 것이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마음 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들은 지혜의 마음입 니다. 지혜의 마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적당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옳다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행하게 되고 마음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고 지혜의 힘이 좋아 지게 되면 무엇을 할 때 옳은지 그른지, 적당 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하게 됩 니다.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옳은 말을 하 고, 행동을 할 때 옳은 행동을 하고, 삶을 살 아갈 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지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옳음이 너무나 분명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노력

바른 노력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 다.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에는 욕심의 마음 이 함께하기 쉽습니다. 수행에서 필요한 노 력은 꾸준하게 해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이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기로스승	건화사	법상	5/20	20,000
	관성사	인선	5/20	20,000
	관음사	김정희	4/28	10,000
		해정	4/22	10,000
	공덕성	5/20	20,000	
		상지화	5/20	10,000
	수종원	5/20	10,000	
		밀공정	5/20	10,000
	총지화	5/20	10,000	
		법수원	5/20	10,000
	선도원	5/20	10,000	
		법지원	5/20	10,000
	일성혜	5/20	10,000	
		사홍화	5/20	10,000
	안주화	5/20	10,000	
		진일심	5/20	10,000
	시각화	5/20	10,000	
		최상관	5/20	10,000
	연동원	5/20	10,000	
		승원	5/20	10,000

밀인사	김재영	5/3	10,000
	김효진	5/3	10,000
밀행사	행원심	4/22	10,000
	이재은	4/22	10,000
법천사	반야심	4/30	10,000
벚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5/3	50,000
	하명순	4/26	10,000
사원명 무기명	남영애	5/3	30,000
	이진승	5/8	10,000
무명씨	5/14	10,000	
	조성기	5/20	100,000
김갑선	5/20	10,000	
	김여진	4/26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4/26	100,000
	김윤수	4/26	10,000
세곡키움 센터	선혜중	4/25	10,000
수인사	정순득	4/26	10,000
서령	4/21	10,000	
	혜원정	4/21	10,000
무명씨	5/10	20,000	
	박성호	5/13	10,000
이순옥	5/13	10,000	
	덕광	5/20	10,000
보현	5/20	10,000	

실지사	정혜정	5/1	10,000
	연화법	5/1	10,000
이도현	5/12	10,000	
	이서현	5/12	10,000
유승우	5/12	10,000	
	전금선	5/2	5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정동숙	4/27	50,000
양지 어린이집	반야화	5/10	30,000
운천사	임지혜	4/25	10,000
	하재희	4/26	50,000
연명구	4/29	10,000	
	최자영	4/30	10,000
이현직	4/30	10,000	
	구미자	4/30	10,000
도우	5/14	10,000	
	지현	5/14	10,000
자석사	김선희	5/10	50,000
정각사	무명씨	4/25	20,000
	탁상달	5/7	10,000
안한수	5/16	10,000	
	승호제	4/21	10,000
강혜란	4/26	10,000	
	이지희	5/3	50,000

총지사	최해선	4/26	10,000
	백귀임	5/10	10,000
김정환	5/11	10,000	
	신성희	5/14	10,000
신명준	5/14	10,000	
	신현태	5/14	10,000
원당	5/15	10,000	
	묘심해	5/15	10,000
홍수민	5/17	10,000	
	최영아	5/17	10,000
통리원	김평석	5/13	10,000
	최유정	4/26	5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우인	4/21	10,000
	보명심	4/21	10,000
강점미	5/2	10,000	
	무명씨	5/2	10,000
무명씨	5/4	10,000	
	무명씨	5/9	10,000
박옥자	5/9	10,000	
	최영미	5/10	50,000
강승민	5/10	5,000	
	무명씨	5/11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5/10	5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①

인간과 자연은 연기적 존재

과거 세상에 설산(雪山)에서 가까운 어느 산 아래에 위덕(威德)이라고 하는 사슴왕이 있었으니, 그는 5백 마리 사슴의 주인이었느니라. 그때 어떤 사냥꾼이 곡식을 놓고서 밭을 설치해 두었다. 사슴왕이 길을 가다가 그만 오른쪽 다리가 털로 만든 밧줄로 빠졌으므로, 사슴왕은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나의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모든 사슴들은 남아 있는 곡식조차도 감히 먹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기에 있는 곡식을 다 먹고 나면 그때 가서 내 다리 모양을 내서 보여야겠구나.”

그리고 여러 사슴들은 모두 떠나갔는데 한 암사슴이 섰다가 계승으로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하옵나니. 바로 사냥꾼이 올 것이옵니다. 원하옵나니 방편을 쓰시어서 이 밧줄을 벗어나 떠나시옵소서.”

그때 사슴왕도 계승으로 대답하였다.

“내가 방편을 부지런히 썼기에 힘이 이미 다하여 버렸구나. 털 밧줄은 더욱더 죄여 들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

암사슴은 사냥꾼이 도착한 것을 보고서 그를 향하며 계승으로 말하였다.

“그대의 날카로운 칼로 먼저 나의 몸을 죽이고 연후에는 바라건대 풀어주시어 사슴왕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냥꾼은 그 말을 듣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내며 계승으로 대답하였느니라.

“나는 끝내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사슴왕 역시 죽이지 않을 것이요 너와 사슴왕을 풀어 줄 터이니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떠나가거라.”

사냥꾼은 즉시 사슴왕을 풀어주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옛날 사슴왕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요, 5백 마리 사슴은 바로 지금의 5백 명의 비구이니라.”

『십승률잡승(十誦律雜誦)』 제1권 중

사슴왕은 다른 사슴들을 위해 고통을 참았고, 암사슴은 사슴왕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사냥꾼에게 목숨을 걸고 맞섰다. 자비로운 사냥꾼은 이들을 풀어주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보면 여러 존재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동물로 태어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윤회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윤회를 사실로 믿든 믿지 않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식사할 때 공양계를 외운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허물을 모두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藥)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供養)을 받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하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농부들의 노동과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 등 무수한 이웃의 노동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하다. 그런데 만일에 그 음식이 고기라면 거기에는 축산동물의 고통과 절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말한다. 식물도 생명 아닌가, 사람이 살려면 무언가 먹어야 하는데 그럼 식물도 먹지 않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유정 무정으로 구분하셨다.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과 같은 감정이 있는 유정이고 식물은 감정이 없는 무정이다. 그러니 같은 생명이긴 해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식물이 어느 정도 감수 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배의 식물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단순하게 양으로

만 보더라도 10배의 살생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면 동물보다는 식물을 먹는 것이 맞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기가 맛있기 때문이다.

사슴왕이 다른 사슴들을 위해 고통을 참았듯이, 암사슴이 사슴왕을 위해 용감하게 나섰듯이 불자들도 맛있음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탈육식을 한다면 가축동물들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고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축산업을 줄임으로써 지구생태계 복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구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과 인간은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동물이나 자연은 인간과 연기적인 존재로서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로 이해된다.

1만년 전에는 99%의 야생동물과 1%의 인간이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독점적인 지배권의 남용으로 1%의 야생동물과 99%의 인간과 인간을 위한 축산동물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순환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로써 인류가 생명대멸종에 이르게 하리라는 인류세라는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의 예측은 매우 현실에 부합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중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고 못 생명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으로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촘촘하게 조직된 지금의 사회(정치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우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가운 경쟁 체제보다는 따뜻한 배려와 돌봄의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종립 동해중, ‘민주시민학교 만들기’

학생 자치활동 지원으로 성장 뒷받침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민주시민학교 만들기’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생들

이 스스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향상을 위한 자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생활안전부가 매월 인성주제를 선정하여 전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이나 느낌을 활동지에 작성토록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담임교사가 선정하여 제출한 반별 베스트 사연을 총학생회장과 학년회장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해가 뜨는 아침에’ 프로그램은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모티브로 삼아 대본부터 연출, 송출까지 직접 운영하는 자율 방송이다. 방송은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 4월과 5월은 배려와 감사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생활안전부장 신동진 교사는 “학교에서 특정 교과 중심의 교육보다는 가치나 주제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관실버센터

‘2021 두뇌장사 선발대회’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카네이션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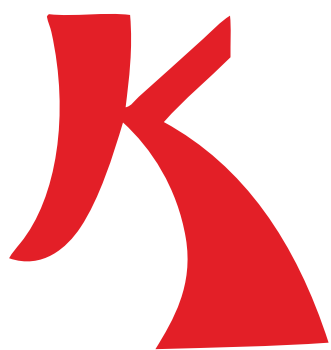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 부설 두뇌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2021 두뇌장사 선발대회’를 실시했다.

처음으로 치러진 두뇌장사선발대회는 코

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두뇌건강학습지를 스스로 공부하는 어르신들과 두뇌건강클라쓰를 수강 중인 어르신 180여분을 대상으로 사전 문제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70여 분의 어르신들이 답지를 제출하는 열띤 참여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지난달 7일 만점을 받아 천하두뇌장사로 선발된 8명의 어르신과 1문제를 틀려 백두두뇌장사로 선발된 13명의 어르신, 2문제를 틀려 한라두뇌장사로 선발된 6명의 어르신을 센터로 초대하여 인증서와 부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홍삼양갱선물세트와 마스크를 증정하며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 수상하지 못한 참여 어르신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마스크를 선물했다.

밀인사 교도



강송카서비스

대표 김태종

☑️ 자동차정비 일체

☑️ 사고, 보험수리 대행

☑️ 정기, 종합검사 대행

Tel. 031)906-7962

Fax. 031)906-7965

Mobile.010-3161-79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73번길 7-4 (백석동 1249-1)

청소년지도 30년 김기태 교도,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 덕화사 승강기 불사 회향 후 수훈의 영예



청소년 지도·보호 분야에서 봉사해온 한국청소년보호총연맹 명예총재 김기태 교도(부산 덕화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특히 부산 덕화사 승강기 불사 회향 후 수훈의 영예를 안게 되어 회사공덕의 환희심이 더욱 커졌다.

여성이족부는 지난 5월 27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김 교도는 30년간 6만8000여명의 청소년에게

상담·특강, 재범 예방 및 교화 등을 추진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급·물품후원 등 위기청소년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부산소년원에서 보호소년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지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각자는 평소 신실한 신행으로 최근에는 덕화사 승강기 회사로 종단 내에서 육행실천의 모범 교도로서 본보기가 되어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 지도·보호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평생을 나눔실천에 꾸준히 앞장서오고 있다.

불교서적 일간베스트 (5/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현실은 영원이다 : 지광스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	지광스님	위로
	2	요가디파카 (아행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스님	선योग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프리스틴 마인드 :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족제 명상 안내서	울겐 초왕 린포체	운주사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7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듬	운허스님	맑은소리 맑은나라
	9	공과 윤리 : 반야 중관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성철	오타쿠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총/지/문/답 ⑨

본존(本尊)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본존이란 법을 전하는 장소나 수행하는 도량의 전면에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대중이 우러러보며 그로부터 어떤 암시나 영감 등 종교적인 가피나 영험을 얻는 상징적 신앙대상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존을 무엇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은 각 종파에 따라 정해집니다. 불상을 모시기도 하고, 불화 또는 원상이나 금강저, 불교총지종처럼 문자(文字) 만다라를 모시기도 합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는 총지종은,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덕 중의 하나를 나타내 보이는(별문별덕 別門別德) 관세음보살님의 깊고도 미묘한 분심인 진언 중의 으뜸 진언(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훬’을 수행의 주축으로 합니다.

총지종에서는 각 사원에서 ‘옴마니반메훬’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제작 보급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옷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고맙습니다

춘계강공 승공양 정각사 신정회

총 지 스 케 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출야호사'로써 국민안위를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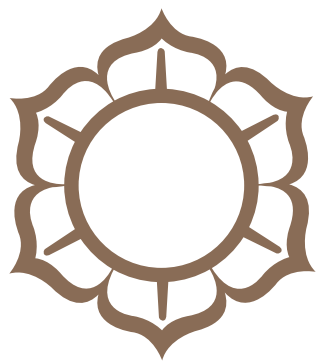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래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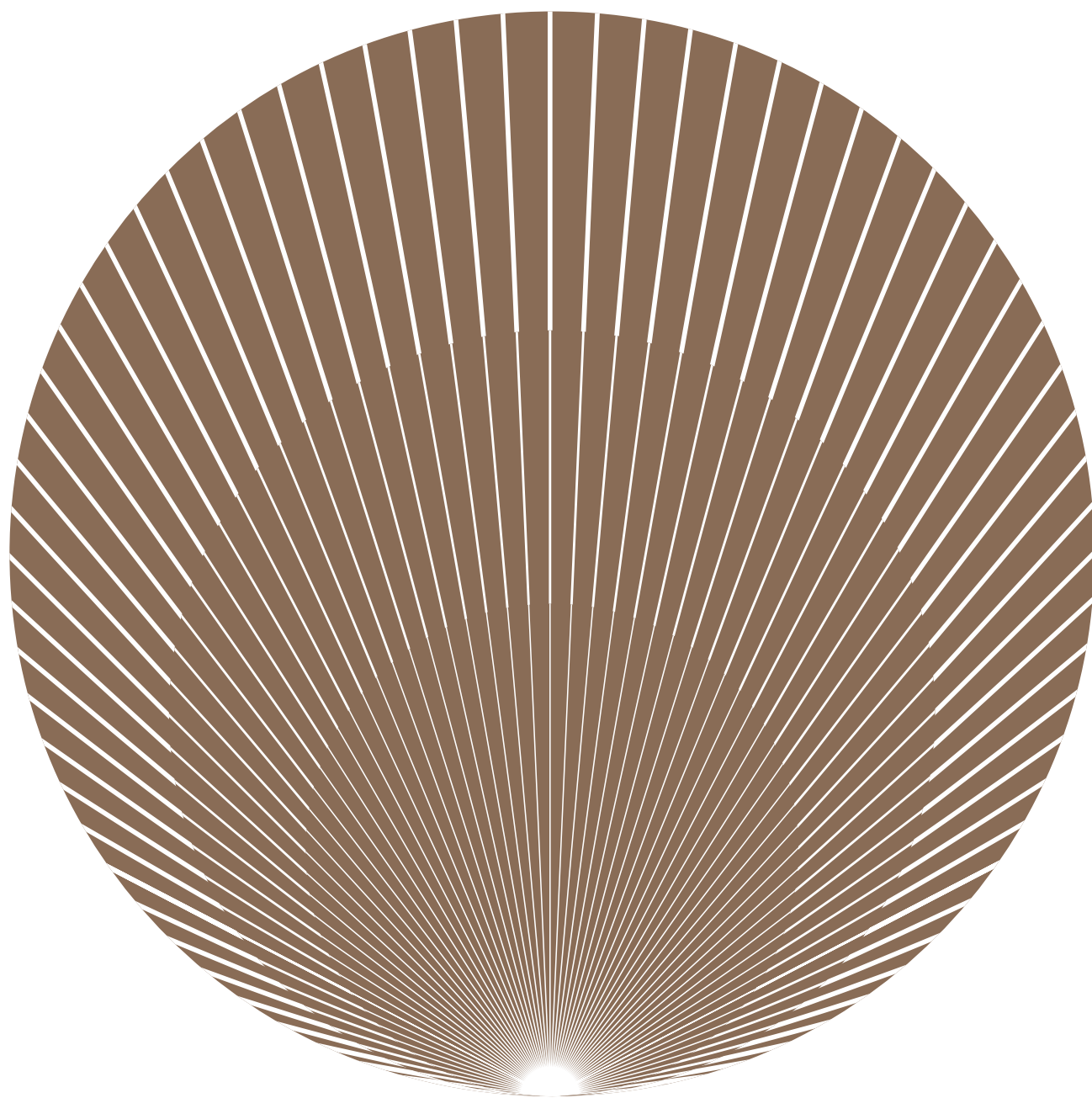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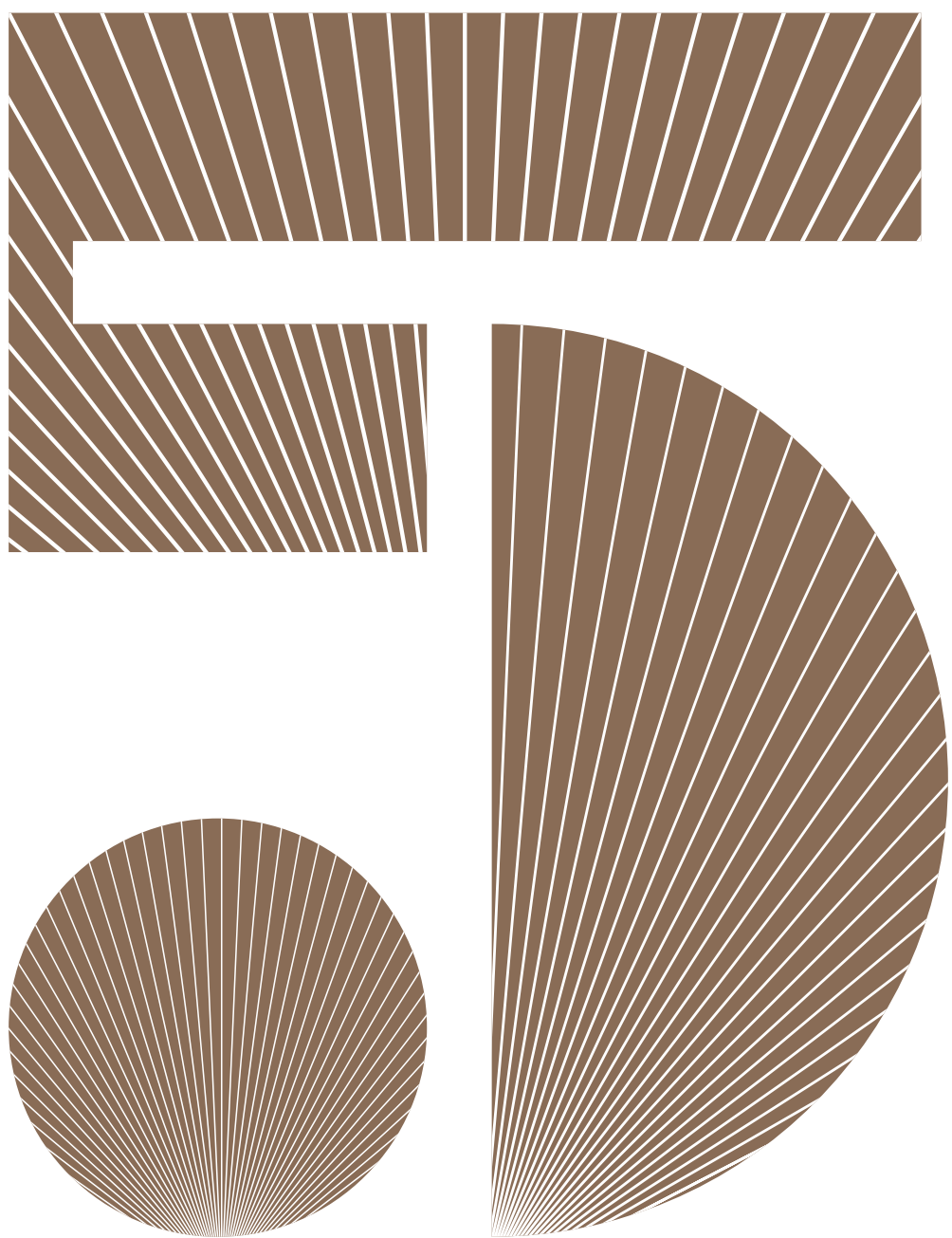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總
指
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史



마감 일정

2021. 08. 31.



불교총지종